

임대료인하 점포 1만곳... 착한건물주 300명 '훈훈'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이디야·더벤티·명륜진사갈비 등 프랜차이즈 본사도 고통분담 나서 정부 '임대료 지원' 곱지않은 시선도

전북 전주에서 시작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수혜를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점포가 1만 곳에 육박하고 있다.

임대료를 내려주기로 한 '착한 건물주'도 300명을 훌쩍 넘겼다.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고통 분담에 동참했다. 가맹 수수료 일정 기간 면제, 월세 지원 등에 나서면서다.

한편 정부가 이들 착한 건물주가 내린 임대료에 대해 헐세로 보전해주고, 오히려 직접 타격을 받고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대부분 보증 등의 형태로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을 놓고 일부에서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가운데 임대료



지난 24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인천시 부평구 부평전통시장이 임시 휴장 안내현수막을 부착한 가운데 불이 꺼져있다. /뉴시스

인하를 결정한 곳은 전국적으로 9372개 점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일 현재 1790개 점포에서 일주일만에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임대료 인하에 나선 건물주(임대인)도 326명으로 일주일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이 7일 동안 크게 늘어나면서 전국에 있는 점

포 9000여 곳이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특히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낮추고, 20% 이상 깎아준 임대인이 전체의 25.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종합시장(4300곳), 남대문시장(1851곳), 경동시장(600곳), 동대문 두타(209곳), 동대문 테크노상가(200곳) 등에서 임대료

서울 외 지역에선 강원 원주 자유시장(442곳), 충남 서천특화시장(250곳), 부산 남구 W스퀘어(100곳), 인천 연수구 트리플스트리트(150곳), 전남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110곳), 곡성 옥과시장(122곳), 고흥 고흥시장(111곳) 등에서 100곳이 넘는 점포들의 임대료가 인하됐다.

식음료나 편의점 프랜차이즈들도 가맹점 돕기에 나섰다. 전국에 2399개(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조사 기준) 점포를 둔 이디야커피는 2개월 간 가맹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본사 차원에서 20억원을 들여 세정제 및 마스크를 배포했다.

282개 점포를 둔 더벤티도 가맹수수료 1개월 면제, 물류비용 10% 인하를 결정했다.

명륜진사갈비(가맹점 124개)는 가맹점당 300만~1690만원의 월세를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맘스터치(1167개), 피자마루(615개), 포봉이통닭(점포 545개), 커피베이(539개)도 본사 차원에서 물류비 인하, 배달 수수료 지원, 격려금 지원 등에 나섰다.

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비자이프 리테일(CU), 지에스리테일(GS25)도

확진자 방문 점포의 경우 도시락 등 신선식품 폐기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전국에 CU는 1만3040곳, GS25는 1만2973곳이 각각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착한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를 돕기 위해 이들이 내린 임대료 절반을 부담하는 동시에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기

로 결정했다. 한 시민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참하는 임대인들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내린 임대료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고통을 더욱 크게 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자가 나갈 수밖에 없는 대출·보증 상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어

긋다"고 꼬집었다. 경기 일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또 다른 시민은 "동종업계에 있는 학원 원장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부탁했더니 오히려 '8월부터 올리겠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더라"면서 "코로나19로 다 같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임대인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스타벅스, 성과급 40만원 상향... '달성률' 기준 차등지급

성과급, 고정→차등 지급 변경

수퍼바이저 기준 고정금액 80만원 변경 후 매장목표 따라 최대 120만원 매출달성률 두고 직원들 '갑론을박'



STARBUCKS®

스타벅스가 올해부터 매장 부문 성과급 제도를 변경했다. 고정 금액으로 지급하던 기존 제도 대신 매장 성과와 연동해 차등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일 스타벅스 관계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매장 부문 성과급을 직책별 고정 금액으로 지급해 왔다. 이에 수퍼바이저는 80만 원, 바리스타는 60만 원의 성과급을 고정으로 받아왔다.

올해 1월 1일자로 변경된 기준은 '달성률' 기준 차등 지급 방식이다. 이에 따라 수퍼바이저는 최대 120만 원, 바리스타는 최대 8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성과급 제도는 2020년 실적부터 적용(2021년 지급분)된다.

평가는 매장목표(100%) 달성을 기

준으로 이뤄진다. 세부 지표는 매출 달성률(40%), 관리가능이익 달성률(40%), CE(Customer experience, 고객 경험) 달성률(20%)로 구성된다. 여기서 관리가능이익은 매출에서 관리가능경비(인사비·소모품류 등)를 뺀 비용이다. 고객 경험은 고객 설문조사 바탕으로 한 만족도가 기준이 된다.

목표달성 구간은 ▲120% 이상 달성 ▲110% 이상~120% 미만 ▲100% 이상~110% 미만 ▲90% 이상~100% 미만 ▲85% 이상~90% 미만 ▲85% 미만으로 나뉜다. 구간 별로 수퍼바이저는 10만 원, 바리스타는 5만 원 단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달성률이

85% 미만일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매출 달성률(40%) 기준에서 프로모션 진행, 날씨에 따라 매출 변동이 큰 매장,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변수가 많은 점은 스타벅스 측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과제다. 스타벅스는 프로모션 운영에 있어서 본사를 100% 의존한다. 직접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은 불가하다. 특히 세부 지표 중 매출달성률은 본사가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느냐와 그날 소비자가 얼마나 방문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게다가 날씨에 따라 고객 방문 편차가 있는 특수매장(스키장 등)의 경우 날씨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매장 달성률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 또한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부 매장은 매출 달성률이 80% 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측은 회사 역사상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달성률이 85% 미만인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성과급은 통상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지급하는 것인 점도 감안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지금껏 스타벅스 20년 역사상 달성률이 85% 미만인 나오는 매장은 극히 드물었다. 거의 없었던 수준"이라며 "메르스 때도 성과급은 지급이 됐다. 상반기 성과급은 상반기 전체의 실적을 고려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120%, 130% 이상의 달성률을 내는 매장이 더 많다. 매장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달성률이 높은 매장에 근무함에도 고정 금액을 받는 것은 불합리 할 수밖에 없다"며 "매장 직원들에게 더욱 많은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동기부여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kmj@



한샘 전시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샘, 코로나 예산 편성 전국 매장·대리점 방역

한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한샘은 전국 곳곳의 자사 인테리어 시공 현장과 전시장,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현장 근무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가구업계 최초로 전국 12개 한샘 디자인파크 등 대형복합매장뿐만 아니라 전국 700여개 중소 대리점으로 범위를 넓혀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현장 근무자 및 고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은 방역을 하루 1회씩 진행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주 1~2회 방역 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한샘은 5억원의 별도 예산도 긴급 편성해냈다. 방역은 살균제를 초미립자로 분사하는 'U·LV 분무코팅살균 방식'으로 환경부에서 '인체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을 인정한 약품으로 진행한다.

매일 고객 집을 방문하는 한샘의 시공 및 AS 협력기사에 대해선 매일 아침 발열 점검을 실시한 이후 시공현장에 투입한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접수기간 연장 등 탄력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 접수기간을 늘리고, 평가 방식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 지원을 기다리는 창업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선 현재 모집중인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 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분사기업),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과 추가 모집하고 있는 청소년 비즈쿨의 접수기간을 10~20일 정도 연장한다.

중기부는 아울러 창업진흥원과 함께 각 사업별로 선정 평가 일정을 조정하거나 평가방식을 변경한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는 평가 일정을 연기하고, 평가방식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오프라인(대면)방식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전성공패키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Pre-TIPS),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판교창업존 입주기업 선정,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

업 등은 오프라인 평가 과정을 동영상과 유선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창업자 혹은 주관기관 모집을 준비하고 있는 타 사업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을 연기하거나 평가방식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됐던 사업별 오프라인 설명회들을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운영해 창업자의 원활한 정보 획득을 도울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